**경제학과 20162878 김홍식**

신한투자증권은 10월 11일 공시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LP는 ETF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매수 매도 호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검은 월요일' 사태 당시 코스피가 급락하며 LP 운용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헷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었다. 이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LP의 본래 역할을 넘어선 과도한 방향성 매매를 시도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철저한 조사와 검사를 요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에서 해당 부서의 실무자는 손실을 감추기 위해 방향성 매매를 스왑 헷지라며 허위로 보고하고 계속해서 포지션을 확대해 결국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규모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 및 트레이더의 매매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한투자증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절대 발생돼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금융업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문을 닫을 수 있는 민감한 산업이다. 특히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금융 결제가 간편해지면서 위험은 더욱 가중되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은 위기 소문이 퍼지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해 하루만에 파산에 이르렀다. 과거 인터넷 뱅킹이 없었을 시절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빼기 위한 시간이 길어 은행이 대응할 시간이 존재했다. 은행으로 뛰어가서 줄을 서야 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Bank Run'이지만 현대 시대의 사람들은 은행으로 뛰어가지 않는다. 단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바닥 만한 기기를 꺼낼 뿐이다.

돈은 현대 사회에서 생명과도 같다. 금융 범죄를 '사회적 살인'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제2의 생명인 돈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지만, 금융업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업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들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받는다. 우리은행의 독일 금리 연계 DLS와 국민은행의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사건,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 등 고객들의 신뢰를 깨는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전처럼 믿고 돈을 맡기지 않는다.

리스크 관리는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제대로 작동할 때는 그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실패했을 경우 기업의 존폐를 가를 만큼 막대한 위기를 초래한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를 막아야 했던 리스크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손실 규모가 더욱 커졌다. 개인의 선의에 의존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은 결국 붕괴하기 마련이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실무자가 '따서 갚겠다'는 식의 위험한 결정을 애초에 시도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신한증권의 이번 1,300억 원 손실 사태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윤 감소와 추가 손실로 연결될 것이다. 한 번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안전이 최우선 과제가 된 현대 사회에서 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는 곧 안전을 의미한다. 우리가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금융기업들이 돈이 되지 않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